



■ 원인 및 환경

- 애멸구와 윤계멸구 등 멸구류에 의해 전염된다.
(종자와 토양에 의해 전염되지 않음)
- 감염된 벼로부터 애멸구가 바이러스를 획득하여 월동 후 3~4월 보리에 감염 발병시켜서 중간 전염원이 된다.
- 월동 애멸구 성충에 의하여 산란된 알이 부화하여 이병주로부터 바이러스를 획득한 후 비래하여 감염된다.
- 남부지방에서 옥수수의 파종기가 너무 늦거나 이를 때, 조기 파종(4월 상중순) 또는 만기 파종(5월 30일 이후)에서 발병이 심하게 나타난다.
- 남부지방에서는 적기에 파종해야 하며 파종 후 경운 및 시비관리를 잘하여야 한다.

■ 옥수수에서 검은줄오갈병 감염 시기에 따른 증상

- 어린식물체의 감염
 - 마디가 극도로 단축되어 초장이 짧아진다.
 - 잎집으로 싸여 줄기가 보이지 않으며 잎의 길이도 짧아진다.
 - 잎몸 뒤 잎맥을 따라 돌기가 관찰되고, 때때로 접히거나 구겨놓은 것처럼 보인다.
 - 개화 결실이 되지 않아 장마철 이전에 죽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.
- 생육 후기 감염
 - 하부 줄기는 정상이나, 상부 마디는 위축되어 잎들이 몰려 휘어지거나 짧아진다.
 - 잎맥을 따라 황화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삭이 달리지 않는다.

■ 방제 방법

병원균(바이러스)이 한번 이병되면 방제 방법이 없다. 따라서 감염예방이 중요하다.

- 저항성 강한 품종을 재배한다.(광안옥 > 광평옥 > P3156 > 청안옥)
- 잡초가 많은 논둑, 제방 또는 보리밭 근처에서의 재배를 피한다.
- 병든 식물체는 즉시 뽑아 제거 후 태워버려 2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.